

[2023년 고려대학교 모의논술 출제의도 및 문항해설(인문계)]

1. 일반 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전형명	모의논술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통합사회, 문학, 생활과 윤리	
	핵심개념 및 용어	사회적 불평등, 문화 다양성, 공감	
예상 소요 시간	80분		

2. 문항 및 제시문

<p style="text-align: center;">①</p> <p>거사(居士)*에게 거울 하나가 있는데, 먼지가 끼어서 마치 구름에 가려진 달빛처럼 희미하였다. 그러나 조석으로 들여다보고 마치 얼굴을 단장하는 사람처럼 하였더니, 어떤 손(客)이 보고 묻기를,</p> <p>“거울이란 얼굴을 비추는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군자가 그것을 대하여 그 맑은 것을 취하는 것인데, 지금 그대의 거울은 마치 안개 낀 것처럼 희미하니, 이미 얼굴을 비출 수가 없고 또 맑은 것을 취할 수도 없네. 그런데 그대는 오히려 얼굴을 비추어 보고 있으니,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p> <p>하였다. 거사는 말하기를,</p> <p>“거울이 밝으면 잘생긴 사람은 기뻐하지만 못생긴 사람은 꺼리네. 그러나 잘 생긴 사람은 수효가 적고, 못생긴 사람은 수효가 많네. 만일 못생긴 사람이 한번 들여다 보게 된다면 반드시 깨뜨리고야 말 것이네. 그러니 먼지가 끼어서 희미한 것만 못하네. 먼지가 흐리게 한 것은 그 걸만을 흐리게 할지언정 그 맑은 것은 상우지* 못하니, 만일 잘생긴 사람을 만난 뒤에 닦여져도 시기가 역시 늦지 않네. 아, 옛날 거울을 대한 사람은 그 맑은 것을 취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내가 거울을 대하는 것은 그 희미한 것을 취하기 위함인데, 그대는 무엇을 괴이하게 여기는가?”</p> <p>하였더니, 손은 대답이 없었다.</p> <p>[* 거사(居士) : 숨어 살며 벼슬을 하지 않는 선비 * 상(傷)우다 : 상하게 하다.] (668자)</p> <p style="text-align: center;">②</p> <p>다양한 문화가 대등한 자격으로 조화를 이루고 공존해야 한다고 보는 다문화주의</p>

가 있다. 다문화주의에는 샐러드 볼(salad bowl) 이론이 있는데, 이는 다양한 채소와 과일이 그 특성을 유지하면서 조화롭게 맛을 내듯이, 다양한 문화가 서로 대등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보는 관점이다. 그리고 문화의 다양성은 인정하지만, 주류 문화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비주류 문화가 공존해야 한다고 보는 문화 다원주의가 있다. 문화 다원주의에는 국수 대접 이론이 있는데 이는 국수가 주된 역할을 하고 고명이 부수적인 역할을 하여 맛을 내듯이, 주류 문화와 비주류 문화가 공존해야 한다고 보는 관점이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바람직한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를 지녀야 할까? 우선, 문화 상대주의와 관용을 바탕으로 수용과 존중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생물 생태계와 마찬가지로 문화 생태계의 다양성도 존중해야 우리 사회의 위상을 높이고 국제 사회 구성원으로서 공존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506자)

③

덴마크는 왜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일까? 공항에 내리자마자 만난 택시 기사의 얼굴을 통해 답을 찾을 수 있었다. 택시 기사의 이름은 라세 밀보인데, 22년째 택시 운전을 하고 있다.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그는 손님들로부터 “그 실력을 갖추고 왜 택시 운전을 하느냐?”라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고 한다. 그때마다 그는 이렇게 대답한다고 한다.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은 아니지만 재미있는 직업이지 않습니까? 택시 운전을 하다 보면 전 세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요. 그래서 나는 이 일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혹시 의사나 변호사가 된 친구를 보면 부럽지 않나요?”라고 물어보았다. 그러자 그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장이 없이는 노동자가 없고, 노동자가 없이는 사장이 없듯이 택시 기사도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일에 자부심이 있습니다.”라고 대답했다. (450자)

④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겨울밤 거리에서 굴 몇 개 놓고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굴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를 위하여
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 주겠다.
내가 어둠 속에서 너를 부를 때
단 한 번도 평등하게 웃어 주질 않은
가마니에 덮인 동사자(凍死者)가 다시 일어 죽을 때
가마니 한 장조차 덮어 주지 않은
무관심한 너의 사랑을 위해

흘릴 줄 모르는 너의 눈물을 위해
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
이 세상에 내리던 함박눈을 멈추겠다.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들을 데리고
추워 떠는 사람들의 슬픔에게 다녀와서
눈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걷겠다.
슬픔의 힘에 대한 이야기 하며
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다. (361자)

⑤

창수는, 우선, 개천 속 빨래터로 눈을 주었다. 한 이십 명이나 모여든 빨래꾼들, 그들의 누구 하나 꺼리지 않고 제멋대로들 지절대는 소리와, 또 실 사이 없이 세차게 놀리는 방망이 소리가, 그의 귀에는 무던히나 상쾌하다. 그는 눈을 들어, 이번에는 빨래터 바로 위 천변의, 나무장 간판이 서 있는 곳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이미 웃을 놀지 않는 젊은이들이, 철망 친 그 앞에 앉아서들 잡담을 하고, 더러는 몸들을 유난스러이 전후좌우로 돌려 가며, 그것은 또 무슨 장난인지, 서로 주먹을 들어 때리는 시늉을 한다. 그것이 '권투'라는 것의 연습임을 배운 것은 그로부터 며칠 뒤의 일이거니와, 그러한 장난도 창수의 눈에는 펍이나 재미스러웠다. 그러한 소년의 눈에, 천변을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모두가, 한결같이 잘나만 보이는 것도 또한 어찌할 수 없는 일이 아니냐. 임바네스* 입은 민 주사며, 중산모 쓴 포목 전 주인이며, 인력거 위에 날아갈 듯이 앉아 있는 취욕이며, 그러한 모든 사람은 이를 것도 없거니와 다리 밑에 모여서들 지절대고, 툭 치고, 아무렇게나 거적 위에서 뒹굴고, 그러는 깍정이 떼들도, 이곳이 결코 시골이 아니라 서울일진댄, 그것들은 또 그만큼 행복일 수 있지 않느냐.

[*임바네스(inverness). 소매 대신에 망토가 달린 남자용 외투.] (654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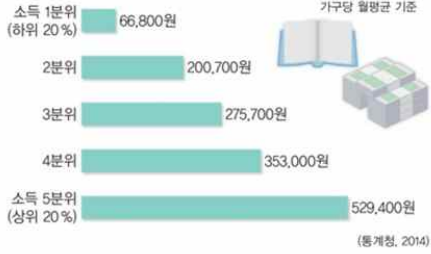
【문제 1】위의 글 ①~⑤ 가운데 셋을 선택하여 그것을 근거로 아래 ⑥의 그림이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사회적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시오. (50점, 답안지 앞면에 700자±50자로 작성)

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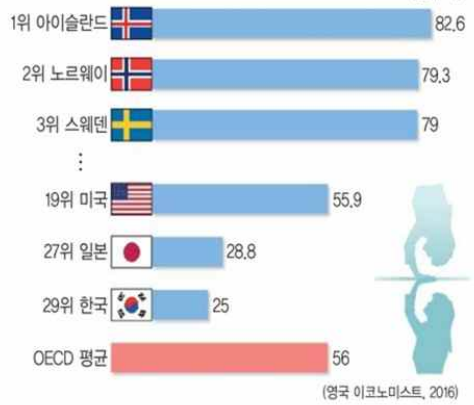
아버지의 직업에 따른 자녀의 직업



소득 분위별 교육비 지출 현황



유리 천장 지수



【문제 2】 위의 글 ①~⑤ 가운데 셋을 선택하여 그것을 근거로 옹호나 비판 어느 한쪽의 입장에서 아래 글 ⑦에 나타난 ‘신(臣)’의 태도를 평가하시오. (50점, 답안지 1면에 700자(±50자)로 작성)

⑦

신(臣)은 농사를 살피는 관원이옵니다. 모든 논의는 농사를 경영하는 데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술(武術)을 강습하거나 문학을 수련하거나, 또 교화(教化)와 예악(禮樂)에 대한 일은 감히 언급하지 못하옵니다. 다만 고을 백성이 편하게 살면서 생업을 즐겁게 여기고, 개천과 봇도랑을 법에 맞게 하고, 집 주위를 가지런하게 정리하며, 모습과 언사가 깨끗하고 미더우며, 그릇과 의복이 견고하고 완전하며, 수목이 번성하고 가축이 잘 자라며, 남녀가 게으르지 않고 각자 일거리를 잡아서 공장(工匠)과 장사꾼이 모여들고, 도둑들이 물러가며, 다리와 주막과 뒷간도 수리하지 않은 것이 없고, 낚시하고 사냥하는 곳에 배도 있고 수레도 있으며, 아이들은 돌림병을 앓지 않고, 늙은이는 노래하고 글을 읊조리게 되기를 원할 뿐입니다. 이것은 모두 근본을 두텁게 하고 농사에 힘쓴 후에 나타나는 효과로서, 집마다 넉넉하고 사람마다 스스로 생활이 족하게 된 뒤의 일입니다. (480자)